

서둘러 잡았던 프리세일 티켓의 뒷

연구실 과제 때문에 매일같이 학회 논문을 읽는 와중에도, 저는 자투리 시간에 소액으로 암호화폐 프리세일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수익률 수십 퍼센트”라는 화려한 수사에 완전히 빠졌다기보다는, 실제 블록체인 응용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텔레그램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해외 유명 VC가 지원한다며 “선착순 30분” 한정 프리세일 방으로 초대를 받았고, 평소 찾아보기 힘든 알트코인이라 호기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당장 실험 코드를 돌려야 하는데 GPU 점유율이 2 시간 뒤에야 떨어질 것 같아서, 잠깐 둘러본다는 마음으로 채팅방에 입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잠깐’이 30분짜리 타이머와 맞물리면서, 제 판단력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점입니다. 연구비를 아껴 두 달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제게, 적은 돈으로 빠른 수익을 얻는 일은 달콤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딘가에 불길한 구멍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금없는 코인 프리세일 초대장

방장은 자신을 미국 실리콘밸리 엔젤투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흑백 옆모습, 상태 메시지는 “Innovation never sleeps”였습니다. 어설픈 번역한 듯한 한국어 공지에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는 공지 시간에만 열람 가능하며, 로드맵과 백서는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엔젤투자자’라면 백서 검증이 최우선일 텐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뒤로 밀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타이머 아래엔 입금 계좌로 쓰이는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이제 막 15분이 남았다는 경고가 붉은 글씨로 깜빡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자’는 욕심과 ‘논문 deadline 앞두고 왜 모험을 하려 하나’는 이성이 엇갈렸습니다.

두 얼굴의 텔레그램 방

프리세일 참여자는 이미 22명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채팅창에는 “입금 완료”, “트랜잭션 확인!”, “방장님 사랑해요” 같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리니 같은 글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른바 챗봇 계정이 돌려쓰는 자동 멘트였습니다.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주소 검증 링크였습니다. 보통 이더스캔 같은 공인 서비스로 연결될 텐데, 방장이 건넨 URL은 ‘etherscn.top’이라는 생소한 도메인이었습니다. 접속해 보니 레이아웃은 이더스캔과 유사했지만, 트랜잭션 해시가 눌러지지 않고 숫자만 보기 좋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즉,

실제 블록체인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은 가짜 UI였습니다. 제가 의심을 표하자 방장은 곧장 “의심이 많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다른 참가자를 태그했습니다. 압박감이 커질수록 방 안 공기는 과열됐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먹튀위크에서 찾은 낯익은 패턴

이름은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평소 사기 사례를 정리해 두는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텔레그램 방 스크린샷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색창에 방장 아이디와 지갑 주소 일부를 넣어 보니, 몇 주 전 “희귀 NFT 단독 민팅”이라는 명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갑 주소 끝자리까지 동일했고, 닉네임조차 한 글자만 바꾼 수준이라 빼도 박도 없는 재탕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은 5분을 과감히 포기하고, 컨트랙트 주소를 받기도 전에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은 제 계정에서 방 링크까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했지만, 이미 저장해 둔 캐시 화면으로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방장은 곧 계정 정지를 당했고, 같은 주소가 포함된 방이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본 욕심의 무게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제 동료 연구원에게 “눈앞의 30% 수익이 얼마나 위험하게 다가왔는지” 고백하자, 그는 “그 30%를 얻으려다 논문이 100% 날아갈 뻔했다”고 농담 섞인 조언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번 학기 등록금뿐 아니라 연구 데이터, 실험 시간, 그리고 지도교수님의 신뢰까지 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개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백서나 감사 보고서 없이 ‘선착순’이나 ‘타이머’로 조급함을 유도하면 무조건 거절할 것. 둘째, 공식 익스플로러가 아닌 URL로 트랜잭션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즉시 창을 닫을 것. 셋째, 더 새롭고 더 빠르다는 미끼보다, 한 번이라도 검증된 프로젝트를 골라 장기 데이터를 추적할 것. 이런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논문 한 편과 맞바꿀 수 없는 값어치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먹튀위크](#) 공지에 제 신고가 반영돼 “같은 주소 재활용 사기 주의”라는 경고가 추가된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놓친 30분짜리 ‘기회’를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욕심이 눈앞을 가릴 때마다, 데이터와 증거를 먼저 찾는 습관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